

<민주노총 여성연맹 보도자료>

**“구의역 안전문 사망사고 청년노동자
추모와 근본적인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민주노총 여성연맹 기자회견**

- 일시 : 5월31일 11시
- 장소 : 건국대병원 장례식장 1층 엘리베이터 앞
- 문의 : 이찬배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010-3204-9065)
- 기사 : 배포 즉시

이 땅의 노동자, 서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합니다.

- 반복되는 서울메트로 안전문 사망사고 - 인원충원과 직접고용을 촉구한다!

**“인원 부족으로 2인 1조가 운영되지
않는 것이 사고의 근본원인이다”**

지난 5월 28일(토) 오후 5시 55분 서울메트로 구의역에서 안전문 사상사고가 발생되었다. 강남역, 성수역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또다시 발생한 희생자는 너무나 안타깝게도 공고를 갓 졸업한 사회초년생 만 19세 고 김00 민주노총 여성연맹 은성피에스디 조합원 동지이다. 생일 전날 동생에게 용돈을 주며 인사하고 출근한 자식의 부고를 접한 부모님은 책임회피에만 골몰하는 서울메트로 관계자들의 발언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부모님들은 경찰의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빈소를 설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메트로 사장은 지난 강남역 사상사고 발생 당시 “안전을 위해 2인 1조로 운영하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2인 1조는 사실 상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8월 말에 약속한 28명의 인력충원 약속은 해를 넘겨 올 1월에 18명 충원에 그쳤으며, 이중 8명은 센서 청소를 위한 인원으로 배치돼 사실상 10명 충원에 그쳤다. 2인 1조는 말뿐이었던 것이다.

은성PSD는 강남지사와 강북지사 둘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 중이며, 이들은 총 98개역의 안전문 관리 보수 업무를 진행 중이다. 지사별로 오전반 11명, 오후반 11명, 야간반 8명으로 운영되고 있다. 2인 1조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고 당시 인원보다 2배로 인원이 충원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명의 인원만 충원이 되었으니 2인 1조는 불가능했으며, 사고는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인재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1인이 업무에 투입될 경우, 관제실에 연락하면 관제실에서는 2인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투입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고, 1시간 이내에 스크린이 오작동 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보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 19세의 청년은 시간에 쫓겨 현장에 도착해 바로 현장보수에 나섰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관제실 연락은 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혼자서 목숨을 걸고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은성피에스디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조합원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경험을 누구나 수차례씩 했다고 한다. 또다시 언제, 누가, 어디에서 사상사고가 날지 모른다고 한다.

지난 4월 28일 서울메트로 사장은 이찬배 위원장에게 자회사 설립에 대해 연구용역을 주어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었다. 5월 10일 방문 때도 확인된 내용이다. 그런데 느닷없이 60세 이상 기술경력자 22명을 자르고 자회사 설립을 8월 1일자로 하기로 서울메트로 이사회(5월 23일)에서 결정했다.

자회사로 간다고 해도 현재 인원 그대로이니 2인 1조가 될 리 없고 자회사 사장은 공사 임원중에서 미리 정해진 낙하산이 오는 것으로 소문이 나있다. 과연 이러한 자회사가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낙하산 자리만들기용 자회사가 필요하단 말인가?

60세 이상 기술 경력자 22명을 자르고 임금피크제 56년생 (59세) 정규직을 6개월 신규 채용한다고 하니 안전대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다. 정규직 퇴직자를 위한 자회사를 서울메트로와 서울시는 당장 철회하라!

민주노총여성연맹에서는 5월 23일부터 자회사 설립을 반대하며, 서울시정의 기본철학인 소통과 협치의 정신을 메트로와 서울시에서 보여줄 것을 촉구한바 있다. 이미 우리 노조는 고등학교를 이제 막 졸업해 은성PSD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노동자들과 고령의 기술경력자(61-63세)들의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농성 및 집회를 6일째 계속해오고 있었다.

민주노총 여성연맹은 서울메트로가 자회사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서울메트로에서 직접고용 할 것을 촉구한다. 이는 이 땅의 청년들의 요구이자, 비정규노동자들의 절규이며, 시대적 요청이다. 서울메트로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사실을 은폐해서는 안 될 것이며, 현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이 땅의 노동자들과 서울시민과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장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것을 1500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촉구한다!

고 김00 동지를 두 번 죽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유가족이 빈소를 설치하고 장례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서울메트로는 유족에게 당장 사죄하라!

우리는 서울시에도 촉구한다! 서울시 교통본부는 서울메트로 자회사 설립 추진을 당장 철회하고 공사 직접고용 방안을 마련하라! 인원충원과 직접고용만이 안전대책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2016년 5월 31일

민주노총 여성연맹 위원장 이찬배